

‘늘봄학교’ 5개 시·도 ‘시범’... “오후 8시까지”

교육부, 시범 운영 시도교육청 선정 결과 발표 인천·대전·경기·전남·경북...저녁돌봄 제공 전남 제외 4개 시도, 수업 전 ‘아침돌봄’도 운영 특별교부금 총 600억 투입해 시범 운영비 보조

교육부가 초등학교 돌봄교실 운영 시간을 확대하고 맞춤형 방과 후 교육을 제공하는 ‘늘봄학교’ 사업을 올해 3월부터 인천·대전·경기·전남·경북 5개 지역에서 시범 운영한다.

교육부는 2023학년도 초등 늘봄학교 시범 운영 시도교육청 선정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선정된 교육청들은 관내 초등학교 전체 10% 가량을 시범 운영 학교로 지정해 운영한다. 교육부는 평균 100억원씩 특별교부금 총 600억원을 지급한다.

시범 운영 학교는 지역별로 경기 80개, 경북과 전남 각 40개, 대전과 인천 각 20개씩 총 200개교다.

이들 지역에서는 이르면 3월, 늦어도 2학기부터 돌봄교실 운영 시간을 오후 8시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시범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시도 교육청에도 오후 8시까지 저녁돌봄을 운영하도록 권고한다.

김태훈 교육부 교육복지특별지원관(국장)은 “현재 오후 7시까지 이뤄지는 저녁돌봄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은 7100여명”이라며 “오후 8시까지 운영하면 전국적으로 7000여명이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현주 교육부 방과후돌봄정책과장은 “(전국 교육청에) 저녁돌봄 운영을 권고한다”며 “시도교육청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 현장 수요와 여건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도 허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 당국은 저녁돌봄을 운영하는 지역에서 학생들의 안전 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지구대와 연계한 순찰을 강화하고 일부는 출입 시스템을 운영한다.

오전 9시 정규 수업 시작 전 운영하

는 ‘아침돌봄’은 농산어촌이 많은 전남을 제외한 인천, 대전, 경기, 경북 4개 시도에서 운영한다. 시간이 가장 빠른 지역은 오전 7시(경기)부터 시작하는 등 차이가 있다.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 사이 쉬는 시간을 활용하는 ‘틈새돌봄’은 시범 교육청 전체가 운영한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학부모 신청을 받아 일정한 기간 돌봄을 제공하는 ‘일시돌봄’은 인천을 제외한 대전·경기·전남·경북 4개 시도에서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초1 신입생에게 특화된 돌봄과 방과 후 교육인 ‘에듀케어’ 집중 프로그램은 시범 운영 200개교 전체에서 운영한다. 초1 신입생은 학교 생활 적응을 이유로 점심을 먹고 바로 학교해 돌봄 부담이 컸다.

교육청별로 지역과 여건에 맞는 사업을 운영한다.

경기도교육청은 시범 운영 약 80개교를 대상으로 초1 에듀케어 집중 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또한 희망하는 초등학교에서 인공지능(AI) 등 에듀테크 기반의 교과 콘텐츠를 제공하는 ‘하나 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수강료를 내야 참여할 수 있는 ‘특기적성 프로그램’ 수강 학생에게 학력 향상 프로그램을 하나 더 무상으로 지원하는 개념이다.

주말과 방학에도 돌봄을 필요로 하는 학생에게 방과 후 학교를 운영한다. 대학과 기업, 비영리단체의 참여를 통해 AI 등 다양한 체험 활동을 제공한다.

인천시교육청은 20개교에서 시범 사업 ‘아침이 행복한 학교’를 운영한다. 정규수업 시작 전 독서, 악기, 미술놀이 등 활동을 제공한다. 도서관과 지정교실을 개방해 교육 시간 사이 틈



새돌봄을 운영한다.

교사 업무 경감 지원책도 마련했다. 인천 일부 학교에서 방과 후 학교 강사 선발 1차 서류심사와 4세대 나이스(NEIS)를 통한 회계업무를 지원할 예정이다.

대전시교육청은 시범 대상 20개교에서 1학기 동안 초1 에듀케어 집중 프로그램 ‘새봄교실’을 운영하고, 초등 5~6학년을 위해 코딩, 인공지능(AI) 등 신수요를 반영한 온라인 방과 후 학교를 운영한다.

나 과장은 “5~6학년을 대상으로 학습 키트(꾸러미)를 제공, 집에서 학교를 대상으로 초1 에듀케어 집중 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새봄교실을 운영하는 학교에는 청소용역비를 지원해 인력을 채용, 교직원 업무 부담을 덜 예정이다.

아울러 시범 운영에 참여하지 않는 다른 대전 시내 초등학교(관내 전체 149개교)에도 희망 학생을 위해 3월 한 달 동안 새봄교실 사업을 운영한다.

도서 지역이 많은 전남도교육청은 약 40개교를 선정, 각각 도시형과 농어촌형으로 나눠 운영한다.

세부적으로 ▲단일학교 ▲거점 돌봄센터 ▲학교·지역연계 ▲교육청-지자체 연계 ▲지자체 주도 5가지 유형을 마련했다. 지역 특성에 맞춰 농어촌 특화 문화예술 등 방과 후 교육

을 운영하고, 남은 교실을 활용해 다양한 돌봄, 방과 후 교육 공간을 확보한다.

경북도교육청은 40개교에서 초등 1학년을 위한 아침돌봄 등 집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교육과정과 연계한 1학기 1프로젝트를 지원한다. 토요일에도 방과 후 교육을 마련해 돌봄 부담을 줄일 방침이다.

교육부는 시범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지역 시도교육청에도 특별교부금 총 100억원을 지원한다. 돌봄, 방과 후 교육 등 유사 사업을 운영할 때 운영체제 구축, 저녁돌봄 식·간식비 등을 보조한다는 취지다.

아울러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지방공무원 정원 120여명을 증원, 학교의 업무를 줄인다. 총 100억원을 추가로 투입해 거점형 돌봄 모델 5곳을 뽑는다.

늘봄학교는 희망하는 초등생 모두가 정규 수업 전후 원하는 시간에 희망하는 양질의 방과 후 교육을 받는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교육개발원(KEDI) 교육통계에 따르면 전국 초등학교는 지난해 4월 기준 6163개교다. 교육부는 올해 3% 내외 학교에서 시범 운영하고 2024년 7~8개 시도로 확대, 2025년 전국에 적용할 방침이다.

서선욱기자



여수소방, 전통시장 전기시설 안전사용 캠페인 실시

여수소방서는 지난 18일 여수 전남시장 등 전통시장에서 전기시설 안전사용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여수=김현근기자



광양소방, 공동주택 112단지 대상 옥내소화전 사용법 숙지 당부

광양소방서는 관내 공동주택 112단지를 대상으로 4개국어 옥내소화전 사용법 스티커 부착을 완료했다고 전했다.

광양=김현근기자



담양소방, 설 연휴 대비 안전한 전통시장 캠페인 열어

담양소방서는 최근 설 연휴 대목장을 맞아 곡성군 기차마을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점포 점검의 날’을 운영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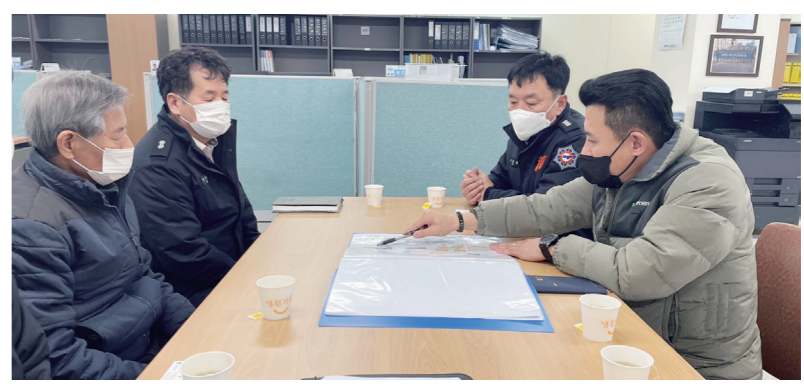
담양=박종영기자



강진소방, “온&오프라인 재난탈출 NO.1” 프로그램 성료

강진소방서는 형식적인 기존 소방교육에 벗어나 직접 체험하고 게임처럼 즐길 수 있는 학생 맞춤형 재난안전교육 프로그램 “온&오프라인 재난탈출 NO.1” 특수 시책이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강진=김영일기자



광주 동부소방서, 대형 공사장 화재안전관리 지도방문

광주 동부소방서는 겨울철 대형 공사현장의 화재예방 등 안전관리를 위해 관내 대형 공사장 9개소를 대상으로 화재안전관리 지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슬비기자



보성경찰, 설 명절 ‘스미싱’ 피해 예방활동 실시

보성경찰서는 최근 설 명절이 다가올에 따라 최근 노인·소상공인 등 대상으로 전화금융사기(스미싱) 피해 예방 홍보활동을 전개하였다.

보성=김덕순기자

중 입국자 3주차 양성률 2.9%...전주 대비 절반 감소

입국자 1만2306명 PCR 검사...361명 확진돼

중국발 입국자들의 코로나19 검역을 강화한 지 3주차에 들어선 가운데 양성률이 2.9%로 나타났다. 2주차 때 양성률(6.0%) 대비 절반 이상 떨어진 수치다.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상황총괄단장은 25일 오전 충북 오송 질병관리청(질병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중국발 입국자의 검사 분석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지난 15~21일 7일간 중국에서 출발해 우리나라로 입국한 사람은

총 1만2442명이다. 이중 약 98.9%에 해당되는 1만2306명이 유전자 증폭(PCR)검사를 받아 361명이 확진됐다. 3주차 양성률은 2.9%이며 지난주(8~14일) 2주차(6.0%)에 비해 3.1%p 감소했다. 누적 양성률은 7.5%다. 공항에서 검사를 받은 단기체류 외국인(5.1%)은 장기체류 외국인(2.8%), 내국인(2.4%)보다 약 2배의 양성률을 보였다. 공항에서 검사를 받은 단기체류 외국인은 2155명이며, 110명(5.1%)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단기체류 외국인의 누적 양성률은 11.6%다.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은 장기체류 외국인은 2156명 중 2101명이 검사를 받아 59명(2.8%)이 확진됐다. 장기체류 외국인의 경우 누적 양성률은 8.2%로 집계됐다. 내국인 입국자 8131명 중 8050명이 검사를 받아 192명(2.4%)이 양성으로 확인돼 격리됐다.

양성률은 모두 전주 대비 감소했다. 입국자 유형별로 단기체류 외국인의 경우 5.2%p, 장기체류 외국인 3.2%p, 내국인은 2%p 감소했다.

김재환기자



산더미 처럼 쌓인 플라스틱 폐기물

25일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용인재활용센터에 설 연휴기간 가정에서 쏟아져 나온 플라스틱 폐기물이 가득 쌓여 있다.

나주시 화물차 눈길 충돌 사고...2명 사상

나주에서 눈길에 미끄러진 5t 화물차가 마주오던 9t 화물차를 들이받아 운전자들이 숨지거나 다쳤다.

25일 나주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7시 50분께 나주시 다시면 1번 국도(다시 방면) 편도 3차선 중 1차선에서 A(58)씨가 몰던 5t 트럭이 마주오던 B(63)씨의 9t 트럭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B씨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씨도 부상을 입어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몰던 화물차가 눈길에 미끄러져 급정거하던 중 중앙선을 넘어 사고를 낸 것이 아닌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나주=송준표기자